



주제 해설

목적 있는 존재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존과 실존으로 설명했다. 그는 동물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상황에 순응하는 생존을 할 뿐이지,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함으로 생존이 아닌 실존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간다. 만약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형편 되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생존 이상의 삶을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현실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삶이다.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그가 마음에 세운 목적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나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시대, 바로 이곳, 바로 이 상황 속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다음세대의 삶의 목적

한 농부에게 좀 모자라는 아들이 있었다. 농부가 하루는 아들에게 쟁기를 주며 김장밭을 갈아놓으라고 했다. 얼마 후 무씨와 배추씨를 가지고 밭으로 나간 농부는 어이가 없었다. 아들이 밭을 엉망으로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농부는 생각했다. ‘내가 제대로 말을 안 해주었나?’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말했다. “다시 밭을 갈아라. 이번에는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담아(온갖 가능한 좋은 부사구를 다 동원해) 밭을 갈거라.” 농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다시 쟁기를 잡았다. 아들은 아버

지의 말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담아(온갖 가능한 좋은 부사구를 다 동원해) 밭을 갈았다. 얼마 후 밭으로 돌아온 농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전보다 밭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또 생각했다.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밭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농부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농부는 쟁기를 쥔 아들의 등 뒤로 가서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밭고랑이 똑바로 되려면, 밭을 갈 때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소를 몰아야만 한단다.” 농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또 쟁기질을 했다. 얼마 후 밭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들이 갈아놓은 밭을 보고 맥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껏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아들에게 물었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소를 몰았느냐?” 아들이 대답했다. “저 앞에 풀을 뜯어 먹는 소의 꼬리요.”

이 이야기는 비록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삶이라는 밭을 갈 때 이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다음세대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멋진 인생이 된다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다.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삶의 목적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 삶의 방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한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르기에 각자의 삶의 모습과 목적은 다양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겠다고 뜻을 세우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1-3과를 통해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과 '하나님을 사랑할래요'(신 6:4-9)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 1과를 배우며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세울 것이다.

2과 '예수님처럼 자라갈래요'(눅 2:40-52)를 통해, 예수님이 신체적, 지적, 영적, 사회·정서적, 즉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셨음을 배운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골고루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다. 2과를 배우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골고루 자라하기로 뜻을 세울 것이다.

3과 '그리스도인답게 살래요'(벧전 3:8-15)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든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운다. 3과를 배우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뜻을 세울 것이다.

이번 주제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세우기로 다짐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길 기도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